

##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한 인권 배려에 대해서

### 현민 여러분에게

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중,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부당한 차별이나 감염된 분에 향한 비방·중상이 국내나 오이타현내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.

(실제 보고가 있었던 사례)

- 감염을 두려워한 과잉 입점 제한
- 오이타현외 넘버의 차를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피·배제.
- 감염된 사람이나 가족, 그 시설이나 주변 지역에 대한 비방·중상
- PCR 검사에서 음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보육원 등원 거부
- 의료종사자나 젊은 층을 바이러스균 보유자로 단정해 차별

누구나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싶지 않지만, 누구에게나 감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.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한 잘못된 정보나 불확실한 정보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, 집단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.

불확실한 정보에 현혹되어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적기관이 발표하는 올바른 정보에 근거해 인권을 배려한 적절한 행동을 부탁드립니다.